

【꿈을 동력으로. 승리를 잡아 축구 일본대표】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.

2014 월드컵 브라질 대회는 이미 조별 리그가 막바지에 이르러 각 그룹에서 잇달아 결승 토너먼트 진출 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월드컵 역대 우승팀이 모인 「죽음의 그룹」이라고 불리는 D 조의 코스타리카. 유일하게 우승 경험이 없고, 고전이 예상된 가운데, 2연승으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. 한편 지난 대회 우승팀인 '무적함대' 스페인과 '축구의 모국' 잉글랜드 등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강호가 최종전을 남긴 채 탈락하는 등 예상할 수 없는 전개가 연속. 세계 강호가 모이는 월드컵의 묘미를 체감하고 있습니다.

그리고 우리 일본 대표의 2차전인 그리스전은 많은 공격을 받았던 1차전의 코트디부아르전과는 달리, 압도적으로 공격적인 시합을 하고 또한, 상대 팀에는 한 선수가 퇴장을 해 수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상대 팀의 철저한 수비로 골을 빼앗지 못한 채 0-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. 수비선수의 허점을 뚫는 세로 페스가 특기인 아오야마 선수가 3번째 교체 카드로 기용되면 재미있는 전개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... 조금 유감입니다.

그렇지만, 이 경기에서 승점 1 점을 획득한 것으로, 그룹 리그 돌파 가능성은 3 차전까지 남아있습니다.

내일 (25 일) 3 차전에서 경기를 할 콜롬비아는 2 연승으로 이미 결승 토너먼트 진출이 정해진 그룹 내 최강의 상대이긴 하지만, 일본은 승리하는 것이 결승진출의 절대 조건입니다.

지금까지 아직 출전 기회가 없는 아오야마 선수의 활약에도 기대하면서, 이번에는말로 공격과 수비를 겸한 「일본 다음」을 발휘하고 기분 좋은 경기를 해, 꼭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.

일본의 결승 토너먼트 진출은 이 경기에서 승리한 후, 코트디부아르 대 그리스전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. 지금까지 첫 경기 패배, 2 차전 경기 무승부에서 3 차전째 승리하여 조별 리그 돌파를 한 것은 2002 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터키만으로 상황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.

그러나 기억하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, 이때 터키는 결승토너먼트 1 회전에서 일본을 꺾고 그 상승세를 타고 4 강에 진출. 준결승에서는 우승한 브라질에게 아깝게 패했지만, 3 위 결정전에서 한국에 승리해 3 위를 차지해 높은 장애물을 극복할때 상위 진출 가능성이 커집니다

콜롬비아전의 경기시작 시각은 오전 5 시. 이른 아침입니다만, 모두 일본 대표의 승리와 조별 리그 돌파를 믿고 성원을 보냅니다!

꿈을 힘으로. 힘내라 축구 일본 대표!
(그리고 힘내라, 화지야노 오카야마!)